



두 페이지씩 보기위한
빈 페이지 입니다.

본문이 다음 페이지로
이어집니다.



상담설교, 그 가능성과 방법론



이승진 | 한국해양대학교(B.E.), 합동신학대학원(M.Div), Stellenbosch Univ.(Th.M, Th.D.),
현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설교학 교수

한국교회 안에서 상담설교(counseling preaching)라는 용어와 그 방법론이 널리 소개되기 시작한 계기는 김만풍 교수가 1995년에 『상담설교』라는 책을 저술하면서 부터다. 이후로 한국의 신학교에서도 상담설교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될 뿐 아니라, 목회현장에서도 활용 가능한 상담설교들이 여기저기에서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상담 + 설교 ?

이런 상황에서 제기되는 첫 번째 질문은, 상담과 설교가 나름의 고유한 신학적인 관점과 독특한 방법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담설교라는 기치 아래 그 둘을 하나로 통합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기실 상담과 설교는 신학적인 전제나 강조점, 관심사 또는 그 방법론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상담은 내담자와 상담자 간의 일대일 대화의 구조를 따라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진행되는 반면에, 설교는 신자들 다수가 집단으로 모인 상황에서 설교자 한 사람과 다수의 청중 간에 일대다(一對多)의 소통구조를 따라서 공개적인 차원에서 진행된다.

상담에서 활용되는 중요한 신학적인 방법론이나 강조점은 살아 있는 인간 문서(living human document)랄 수 있는 인간이나 한 인간이 속한 집단(예. 가정, 교회) 속에서의 인간 상호의 역학관계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에 집중된다. 반면 설교는 하나님 말씀의 선포로서의 영적인 권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에 대한 올바른 해석전략(해석학)과 그 메시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선포를 위한 수사학이 중요한 관심사로 부각된다.

예를 들어 직장생활과 관련하여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힌 청중을 대상으로 하는 위로의 메시지를

상담설교의 기법을 따라서 전하려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설교자는 창세기 13:14 이하에서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부여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동서남북 어디든 보이는 땅을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으라고 권면하면서, 과거의 아브라함의 상황과 오늘 청중의 상황을 동일시하여 상담설교를 전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

상담학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심리적인 상황의 유사성에 비추어 볼 때, 과거의 아브라함과 오늘의 청중 사이에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라는 동일한 심리적 요소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미래를 축복하셨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여러분의 미래도 축복해 주시니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설교할 수 있다.

그러나 성경 해석학의 관점에서 보자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아브라함의 미래와 오늘 성도들이 마음속에서 염려하고 있는 직장생활이나 가족생활과 관련된 미래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존재한다. 간단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던 아브라함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역사 속에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이후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대한 미래를 향한 축복이다. 오늘날 신자들이 세속적인 성공과 야망을 달성하지 못할 것 같아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동요나 근심의 차원과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

상담설교의 가능성

그러면 이렇게 서로 다른 신학적인 관심사와 방법론을 갖고 있는 상담과 설교를 상담설교라는 하나의 깃발 아래로 통합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상담과 설교를 통합시키려는 시대적인 조류나 추세에 대해서는 여러 관점에서 분석이 가능하다. 앞에서 예로 언급했듯이 먼저 비평적인 관점으로 볼 때 상담설교는 시대나 상황을 초월하여 불변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말씀을 인간의 가변적인 상황에 맞게 조작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말하자면 상담설교가 부각되는 오늘날 시대 조류의 저변에는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선포에 대한 우선순위가 인간의 복리에 대한 관심에 밀려 퇴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상담설교를 꼭 신본주의를 무너뜨리고 무조건 인간의 권위와 가치만을 강조하는 인본주의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단정지를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성 삼위 하나님은 결코 인간의 처지와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류 구원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성육신 사건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것처럼 항상 인간의 처지와 상황을 고려하여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 처지를 고려하여 구원의 역사를 집행해 가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계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도 이 세상 속에서 인류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각 사람의 처지와 상황을 배려하고 이해해 주시며, 인간 상담자처럼 각자의 상황에 맞게 말씀을 개별적으로 적용시켜 주시는 보혜사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NIV 성경은 요한복음 14:16, 15:26의 파라클레토스를 상담자(counselor)로 번역하여 위로와 돌봄의 기능을 하는 성령의 역할을 상담의 활동과도 연결지어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인류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 구원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성부 하나님이나 성육신의 주체이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오늘도 각 사람과 각 교회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 말씀을 조명하시며 적용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놓고 볼 때, 사실 삼위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하여 활동하시는 상담자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볼 때 상담자이신 삼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에 상담의 차원이 결합되는 것은 당연하다.

상담설교의 단계(방법)

그렇다면 상담설교는 어떤 방법을 따라서 어떻게 선포되어야 하는가? 도널드 캡스(Donald Capps)는 상담설교의 구성과 방법에 관하여 다음 네 단계의 구조를 제안한다:

- ① 청중이 현재 처해 있거나 갖고 있는 문제를 파악하고 확인하기
- ② 청중의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탐색과 분석
- ③ 청중의 문제와 관련된 성경 본문에 대한 진단적이고 처방적인 해석
- ④ 목회적인 권면과 조언의 제시.

먼저 상담설교의 서론 부분은 회중의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회중과 설교자가 문제점을 중심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단계이다. 설교와 달리 상담에서는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가정이나 직장 등등의) 문제점을 털어 놓으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설교에서는 회중이나 청중이 자기 상황을 털어 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역할을 설교자가 대신하여 현재 청중이 처한 영적인 상황이나 문제점을 진술한다.

설교자가 회중의 문제점을 언급하고 확정하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설교자가 회중의 문제를 자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저 먼 거리에서 무심하고 냉담하게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면서 함께 아파하는 목회적인 심정으로 회중의 문제를 묘사해야 한다.

회중의 특정한 문제가 지목된 다음, 두 번째 단계에서 설교자는 해당 문제가 야기된 심층적인 원인이나 배경을 분석하고 또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도된 기존의 답변들이 정말 해결 가능한 답변인지 아니면 피상적인 해답으로 제시될 뿐 실제 문제 해결을 가져다주지 못한 것은 아니었는지를 여러 각도에서 점검하고 또 비성경적이거나 인간적인 시도의 한계를 부각시킨다.

상담설교의 셋째 단계는 회중의 영적인 문제에 대한 성경적인 해답을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해답은 피상적인 질문에 대한 즉흥적인 차원의 해답이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근원적인 질문에 대하여 인간세계의 피상적인 인과율의 논리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응답으로서의 복음의 해답을 선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라는 다분히 인간 중심적인 질문에 대해서 피상적인 답변을 제공하는 설교에서는 이것을 행하고 저것을 행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내라고 재촉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복음의 해답은 이것이다.

“이미 우리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고 있음을 바라보라.”

물론 모든 상담설교의 해답이 꼭 이런 내용으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상담설교의 후반부에서 중요한 것은 청중의 특정한 문제점을 겨냥한 해답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안에서 찾아내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널드 캡스가 제안하는 상담설교의 마지막 단계는 목회자가 목회적인 권면과 적용점을 제시하면서 회중의 문제점 속으로 깊숙히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상담설교를 전한다면 이때 설교자가 염두에 두어야 것은 바로 기독교청소년들의 인격적인 정체성을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고하게 다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설교자는 빌립보서 3:1-11을 가지고 청소년들의 자아 정체감 형성에 관하여 설교하면서, 청소년들에게 외모나 학벌이나 세속적인 지위가 아니라 자신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서 또 하나님의 사랑과 미래에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미래 안에서 자신의 올바른 정체성을 형성하도록 도전하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도널드 캡스가 제안하는 상담설교의 마지막 단계인 목회적인 개입은 자아 정체감 형성에 관한 메시지의 선포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설교가 끝난 다음의 성경공부나 예배시간을 통해서 변화된 자신의 미래 모습을 글로 적어서 발표하거나 그룹별로 서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말해주고 지원해 주고 서로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하도록 함으로써, 자아 정체감에 대한 상담설교를 듣고 마음에 결단을 가진 신자들이 실제 삶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람직한 자아 정체감을 구체화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한 가지 방안으로서의 상담설교

이상으로 상담설교의 가능성과 그 방법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상담과 설교는 나름의 독자적인 관심사와 강조점을 가지고 있지만 학문과 학문의 융합(conversion)을 추구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본문(scriptural document)에 대한 관심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할 살아 있는 인간 문서(living human document)에 대한 관심이 목회자의 설교사역 속에서 하나로 융합되는 것이 모든 설교자들이 추구해야 할 올바른 영적 융합이며, 상담설교는 그 한 가지 방안을 제공한다. **생**